

해외 신진 연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반도 문제와 북한

- 「해외 연구자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첫 번째 세션 유튜브 영상 공개

- 통일부는 해외 신진 한반도 연구자들과 온라인(Zoom) 세미나를 실시하고, 8월 6일(수) 오전 11시, 첫 콘텐츠를 공개한다.
 -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과 지속성 있는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해외 연구자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본 사업은 해외 한반도 연구자를 섭외하여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이를 유튜브로 공개하는 사업이다.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를 알릴 해외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여 통일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한 이들의 다양한 시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 올해 첫 번째 세미나는 ‘새로운 북한’이라는 주제로 2020년대 들어서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건축·반도체·관광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 북한의 건축 부분은 치형 해리스 킴(Cheehyung Harris Kim)* 하와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반도체 부분은 톰 래미지(Tom Ramage)** 미국 KEI 경제정책 분석가, 관광 부분은 사이먼 콕캐럴(Simon Cockerell)*** 前 고려투어 총괄 매니저가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백우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 * 치형 해리스 킴 : △美 하와이대 마노아 캠퍼스 역사학부 부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역사학 박사 학위 취득 △주요 연구분야 : 북한, 동아시아, 노동, 산업주의 등
- ** 톰 래미지 :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 분석가 △존스홉킨스 대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 취득 △주요 연구분야 : 한미 간 무역 및 경제정책 등

*** 사이먼 콕캐럴 :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의 총괄 매니저 △180회 이상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북한 관광 전문가 △관광 루트 개발·다큐멘터리 제작 자문·해외 언론 기고 등 다각도로 활동

○ 통일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동북아 국제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로 올해 총 6회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28명의 연구자와 7회*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 (24년 주제) △북러 무기협력과 동아시아 안보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우리 정부의 광복절 담화 △북한의 조용한 변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와 정치 △미국 대선과 지역적 맥락의 북한 연구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접근

○ 전체 합본 영상은 통일부 UNI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며, 연구자별 편집 영상은 웹사이트 「Now in North Korea」*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Now in North Korea」 웹사이트 주소 : www.nowinnk.com/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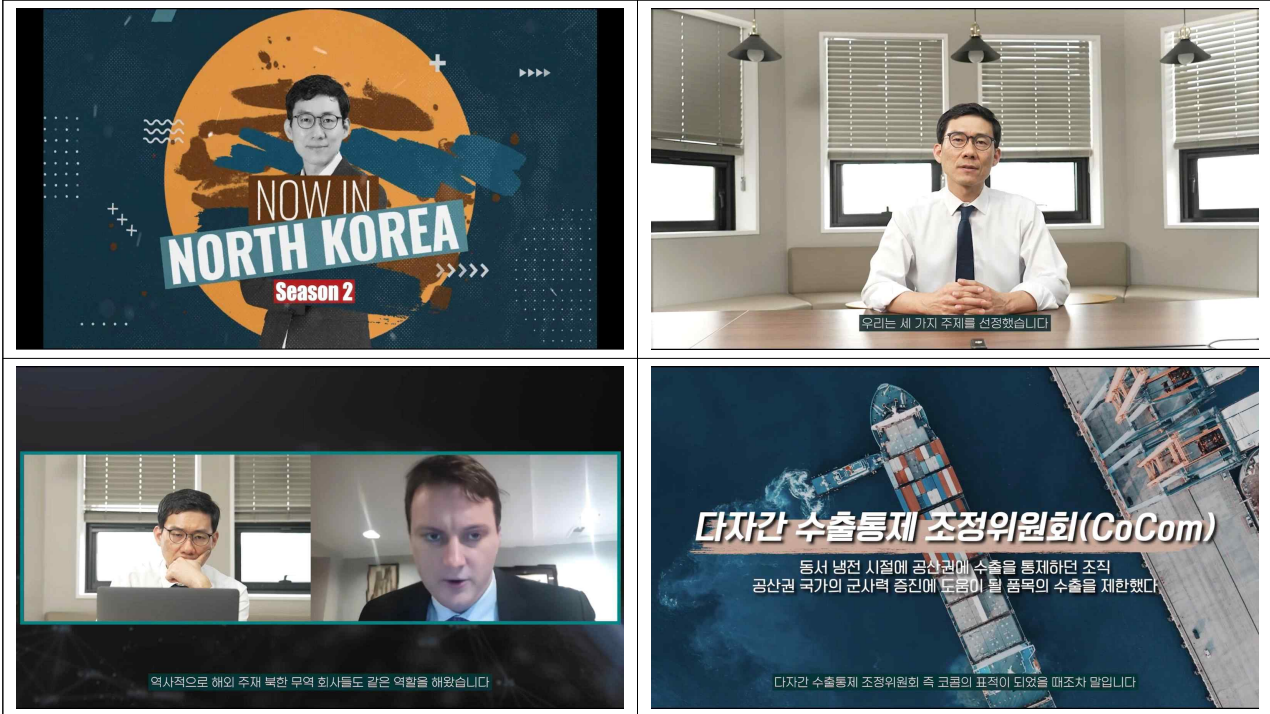
□ 통일부는 「해외 연구자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외 한반도 연구자를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2025년 첫 번째 세미나 영상 자료
2. 2024년 연구자 섭외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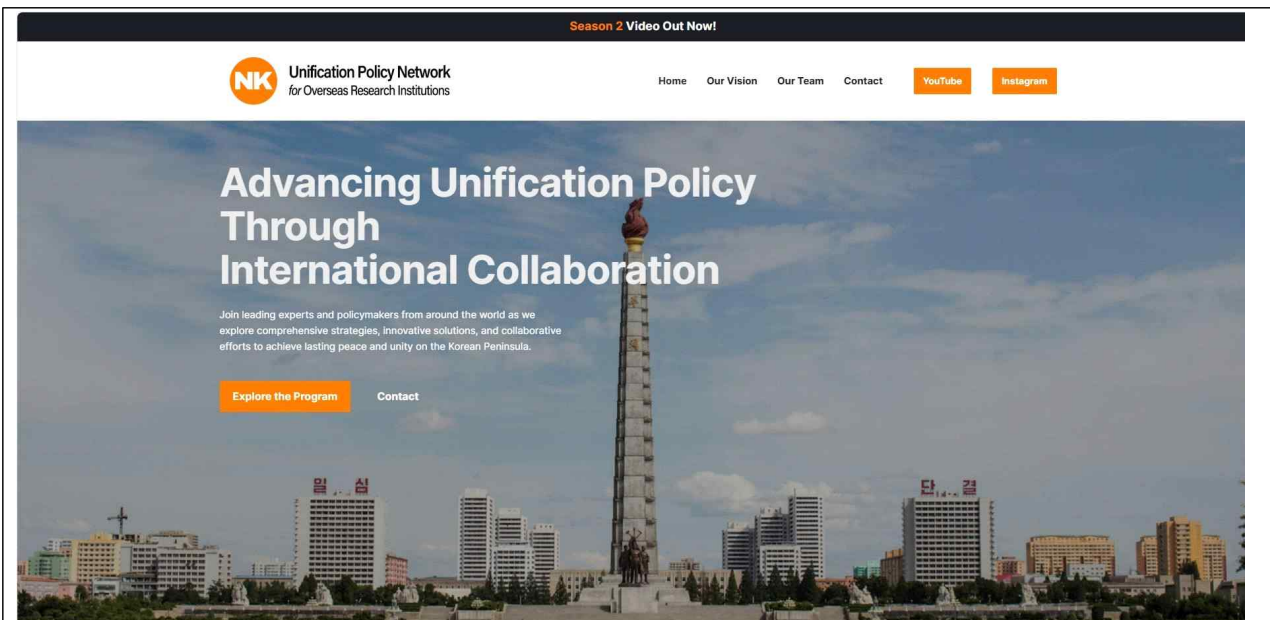
담당 부서	통일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고원형 (02-2100-5820)
		담당자	주무관	박윤범 (02-2100-5828)



□ 주요 장면



□ 웹사이트(<http://www.nowinnk.com/Home>)



세션	주제	소주제	연구자	소속
1	북러 무기협력과 동아시아 안보	유럽은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합니다.	Celine Pajon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대만이 북러 군사협력을 싫어하는 이유는?	Alex Tan	University of Canterbury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일본의 시각	Seung Hyok Lee	Tohoku Gakuin University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바라본 북러 군사협력	James Crabtre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우리 영국에서 먼저 통일을 이뤘어요.	Lee Hyang Kue	New Malden Korea School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접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해요.	Jay Song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위성사진보면 알아요, 북한의 인권상황	Sarah A. So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내가 바깥세상소식을 듣고 탈북했잖아요!	Jihyun Park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3	우리 정부의 815 광복절 담화	한국 통일정책과 일본의 시각	Nishino Junya	Keio University
		영국인 박사가 바라보는 통일정책은?	Peter Ward	세종연구소
		위성턴의 한국인이 전하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Kadir Jun Ayha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남북관계처럼 영국과 아일랜드도 엄청 난리였어요.	Kevin Gray	Sussex University
4	북한의 조용한 변화	북한 정권은 평양의 신흥부자에게 어떻게 대응할까요?	Sheena Chestnut Greitens	Texas University at Austine
		원래 사회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김정은도 북한 엘리트에겐 쉬운 상사는 아니겠죠?	Edward Goldring	Melbourn University
		바보야, 문제는 북한에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느냐야!	Steven Denney	Leiden University
		북한 주민은 소리소문없이 이렇게 저항합니다.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Hebrew University
5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와 정치	평양의 노른자땅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도 강남이 있어요!	Pavel P. Em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김정은은 "우리 일꾼들 위한 철갑상어입네다"라고 외칠 겁니다.	Robert Winstanley-Chesters	University of Edinburgh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물건이 어떻게 북한으로 밀수되는지 아세요?	Adam Cathcart	University of Leeds
		아무리 막아도 북한 제제는 여러 방식으로 뚫리고 맙니다.	Justin Hastings	Sydney University
6	미국 대선과 지역적 맥락의 북한연구	이탈리아 북한연구의 지역학 맥락	Antonio Fiori	University of Bologna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타이완의 시각	Chung-Min Tsai	University of California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폴란드의 시각	Oskar Pietrewicz	Polish Institute
		트럼프 2.0, 한번 더 북미정상회담?	Troy Stangarone	the Hyundai Motor-KF Center for Korean History and Public Policy, Wilson Center
7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접근	북한은 도대체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Lauren Sukin	London School of Economics
		북핵개발자 지도 그려줍니다, 댓글 다세요!	Philip Baxter	James Madison University
		북한의 미사일은 어쨌거나 '엄청' 발전하긴 합니다.	Ankit Panda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 군인부터 희생될 겁니다.	Orysia Lutsevych	Ukraine Forum Chatham House